

재즈를 듣다 - 1

- 잠발라야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카펜터스(Carpenters)가 1973년 발표한 ‘나우 앤 덴 (Now & Then)’ 음반은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올드팝 넘버인 ‘가면무도회(This Masquerade)’, ‘다시 한번 그 시절로(Yesterday once more)’ 등과 함께 ‘잠발라야(Jambalaya (on the bayou))’가 수록된 명반 중 하나다. 나는 잠발라야가 음식 이름이란 걸 몰랐다. 노래 분위기로 추측하여 카리브해 주변의 레게나 칼립소 같은 음악 장르인 줄 착각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스페인 요리인 빠에야를 기본으로 하여 프랑스, 아메리카 원주민의 식문화가 뒤섞인 볶음밥이라고 나온다. 이름만 들어선 생소할 분이 있겠지만 과거 모 페스

트푸드점에서 판매하였던 ‘케이준 라이스’가 잠발라야의 한 종류다. 케이준(Cajun)은 원래 프랑스계 후손으로 캐나다 아카디아(Acadia)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18세기에 일어난 대규모 전쟁이었던 ‘7년 전쟁’의 여파로 영국에 의해 미국 루이지애나로 강제 이주당한다. 그 결과 아카디아에서 온 사람이란 뜻인 아카댕(Acadian)이 카댕(Cadien)으로, 다시 케이준(Cajun)으로 변했다고 한다. 1990년 인구 조사에선 여전히 고립된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케이준-프랑스어를 구사하던 인구가 40여만 명 정도 있었다.

루이지애나주 역사는 다소 복잡하다. 루이 14세에서 따온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처음엔 프랑스령이었다가 스페인령으로 바뀌었다가 19세기 초 미국에 넘어갔다. 그 결과 프랑스계, 스페인계 및 흑인 노예가 뒤섞인 혼돈(?)의 지역이기도 했다. 루이지애나 남쪽엔 ‘누벨 오를레앙(Nouvelle-Orléans)’이란 항구 도시가 건설됐다. 훗날 미국 땅이 돼 ‘뉴올리언스(New Orleans)’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동네가 공식적인 재즈의 발상지다. 잠발라야도, 재즈도 이 같은 소위 ‘문화의 용광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잠발라야 / 출처 : wikipedia.org

다시 잠발라야 얘기로 돌아가 보자. 잠발라야는 케이준 외에 하나가 더 있다. ‘크리올 잠발라야(Creole Jambalaya)’는 케이준과 달리 토마토를 추가했다. 뼈야에 들어가는 비싼 재료인 샤프란을 대체하고자 넣은 것이다. 그래서 케이준과 달리 붉은색이란 차이가 있다.

‘케이준’과 마찬가지로 ‘크리올’이란 말에도 못잖은 사연이 있다. 유럽에서 태어나 식민지로 이주해 간 백인을 (이베리아반도(= Península ibérica)에서 온 백인이란 의미로) ‘페닌슐라’라 했고, 이에 반해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을 크리올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의미가 변해 특히 미국에선 남자 백인 주인과 여자 흑인 노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을 크리올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크리올 계층은 부계의 지위와 재산을 어느 정도 물려받아 부유한 편이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교양인이었다. 당연히 유럽 고전음악 교육을 받아 음악에도 소양이 있었다. 또 케이준이 고유의 케이준-프랑스어를 구사했듯 유럽계와 아프리카계 언어가 뒤섞이는 과정에서 식민지에서 자연 발생한 언어를 크리올어라고 불렀다.

역설적으로 크리올의 최대 시련은 1863년 1월 1일 아브라함 링컨이 발표한 ‘노예해방선언’ 이후에 일어났다. 일부 백인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크리올이 이날을 기점으로 흑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크리올 중 유럽 고전음악 소양이 있던 몇몇이 스토리빌(Storyville)에 일 자리를 잡았다. 스토리빌은 뉴올리언스에 주둔 중이던 해군을 대상으로 매춘업을 하던 홍등가였다. 노예 해방 이전 크리올이 이런 곳에서 일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었지만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자 어쩔 수 없었던 듯하다. 당시엔 아직 재즈가 없었으므로 주로 랙타임(Ragtime)이나 작은 클래식 소품들이 배경 음악으로 연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크리올은 악기 연주법을 몰라 엉터리로 연주하던 흑인들의 음악 선생님 역할을 병행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로써 모든 재료가 갖춰졌다. 흑인 고유의 서아프리카 음악 전통, 크리올의 유럽 고전음악 전통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방에서 만났다. 초기 재즈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재즈(Jazz)’라는 말의 기원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할 뿐 정설은 없다. 당시엔 재즈의 어감이 매우 저속하여 상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추측해보자면 어원에 관한 여러 주장 중 자이브(Jive)와 똥꼬(= Ass)가 합쳐져 ‘재스(Jass)’가 되었고, 이것이 ‘재즈(Jazz)’로 변해 단 설이 나름 그럴싸해 보인다. 오늘날 사전에서 ‘자이브(Jive)’를 검색하면 ‘스윙 음악, 거짓의, 믿지 못할 말’ 등의 설명이 나오지만 100여 년 전엔 흑인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또 하나 전해오는 일화로 어느 바에서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관객석에서 큰 소리로 ‘재스 잇 업!(Jass it up!)’이라 외쳤다고 한다. 직역하면 “좀 흥분시켜봐!”, 의역하면 “연주 좀 화끈하게 해 봐!”란 의미다.

오늘날 ‘재즈!’ 하면 주로 피아노, 드럼, 베이스, 색소폰, 트럼펫 등이 나오는 콘서트 현장이나 이브닝 드레스 입고 가서 와인을 홀짝대는 고급 라운지를 상상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곤 본다. 하지만 초기 재즈는 결코 그런 게 아니었다. 미국 남동부의 거칠고 원초적이며 (악보를 읽을 줄 몰라) 즉흥 연주밖에 할 수 없었던



젤리 롤 모튼 / 출처 : acloserwalknola.com

하층 계급 흑인 음악이었다. 재즈에 지금과 같은 이미지가 덧붙여진 시점은 1940년대 이후 비밥(Be-bop)이란 장르가 등장하면서부터다. 그래서 초기 재즈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같은 음악을 재즈라 부르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젤리 롤 모튼(Jelly Roll Morton)은 초기 재즈의 역사에 꼭 거론되는 인물이다. 아버지가 크리올이었으므로 2세대 크리올인 셈이다. 옷차림에서부터 허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진 중 웃고 있는 정면 사진을 보면 이빨이 이상하게 빛난다. 앞니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도 돈 자랑하려고 멀쩡한 이빨 빼고 금니를 박아 넣은 졸부가 있었는데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한다. 황당하게도 스스로 재즈의 창시자라며 서슴없이 떠벌이곤 했다. 이런 인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랙타임 주법에서 비롯돼 향후 재즈 피아노 연주 기법으로 정착된 ‘스트라이드 스타일’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1920년대에 ‘레드 핫 페퍼스(Red Hot Peppers)’라는 재즈 밴드를 결성하여 빅터사에

서 약 50여 곡의 녹음을 남겼다. 밴드 이름을 듣는 순간 ‘어?’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유명 록 밴드인 ‘레드 핫 칠리 페퍼스(Red Hot Chili Peppers)’와 겹친다. 하지만 밴드 멤버 중 누구도 젤리 롤 모튼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적은 없다. 우연의 일치인지, 다른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필자가 재즈에 빠져 지내던 90년대엔 재즈역사책에서 젤리 롤 모튼이란 이름을 들어는 봤어도 직접 음악을 들을 기회가 전무했다. 세상이 변해 우리에게 유튜브라는 보물창고(?)가 생겼다. 독주곡으로는 ‘킹 포터 스톱프(King Porter Stomp)’, ‘울버린 블루스(Wolverine Blues)’, ‘캔자스 시티 스톱프(Kansas City Stomps)’ 등과 밴드곡으로 ‘정글 블루스(Jungle Blues)’, ‘오리지널 젤리 롤 블루스(Original Jelly Roll Blues)’, ‘사이드워크 블루스(Sidewalk Blues)’ 등 도너츠판으로 남아있는 상당수 곡을 직접 들어 볼 수 있다. 또 이 당시엔 자동 피아노라고 하여 두루마리 종이(= Piano roll)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을 피아노에 연결하면 피아노가 스스로 연주를 하는 장치가



레드 핫 페퍼스 / 출처 : twitter.com/franckbiyong1



시드니 베세 (오른쪽 아래 색소폰 연주자) / 출처 : flickr.com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포스터 / 출처 : susanmagnolia.com

있었다. 유튜브에서 그가 남긴 피아노 롤로 ‘펄(The Pearls)’을 자동 피아노로 연주하는 영상도 찾아볼 수 있다. 막상 그가 연주하는 곡을 듣고 나면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 분이 많을 것 같다. 한마디로 “뭐가 대단한데?”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당연하다. 우선 축음기 발명 초기라 녹음 기술 수준이 낮아 악기 소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고, 100년 전 음반을 복각하여 음질이 좋지 않아 듣기 거북하다. 더구나 연주 실력만 놓고 보자면 오늘날 뛰어난 실력을 갖춘 연주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역사적 혁신’을 이해하기 위해선 마음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 당시 사회상 전반을 상상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재즈는 귀가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공을 많이 들여 반복하여 듣고 또 듣다 보면 비로소 ‘아~ 좋다...’란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다. 그때부터 비로소 재즈를 듣는 시간이 행복해진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필자 역시 젤리 롤 모튼이 남긴 곡을 듣고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누구라도 듣자마자 바로 좋아할 만한 초기 재즈 연주는 없을까?

또 한 명의 주목할 만한 크리올 재즈 연주자로 시드니 베세(Sidney Bechet)가 있다. 주요 악기는 클라리넷과 색소폰이다. 색소폰이 발명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특히 더 불안정했던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한 선구자이기도 했다. 이분은 영화감독인 우디 앨런 덕분에 비교적 최근 새롭게 재조명을 받았다. 2011년에 개봉한 낭만적인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 OST에 시드니 베세가 연주한 ‘네가 올 엄마를 만나거든(=Si Tu Vois Ma Mère)’이란 곡이 수록돼 있다. 유튜브에 시드니 베세의 여러 곡이 있긴 하지만 우선 이 멋진 영화와 음악을 함께 감상해 볼 것을 추천한다. 초기 재즈 중 이 곡이라면 많은 분이 듣자마자 반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